2부 영감 — 하나님의 숨결로 된 글

성경론 8편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워필드 4장 '영감' 3절(요한복음 10장 부분)·4~8절(그리스도의 선포, 하나님이 저자이심을 증언, 사도들의 증언, 하나님과 성경의 동일시, 하나님의 신탁)·18절 · 워필드 7장 "이르되"와 "성경이 이르시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핵심만) · 프레임 18장 구약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 프레임 19장 구약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 프레임 20장 구약성경에 대한 사도들의 견해(1~2절) · 프레임 21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7절) · 오웬 4장(연결만) · 신앙고백서 1.2 · 신앙고백서 1장 1.2

> ❓ **예수님도 구약을 한 글자까지 믿으셨어?**

🧭 흐름 한눈에

이 편은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인용하셨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그 말씀에 매여 사셨습니다. 창세기 서술자의 문장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로 인용하셨고, 시편의 낱말 하나에 기대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대에 맞춘 말이었다는 반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통과는 정면으로 부딪치셨지만 성경의 권위만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뒤에도 같은 성경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성경이 이르시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바꿔 썼고, 성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태도는 신약에까지 이어져, 신약의 책들도 쓰이던 때에 이미 '성경'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편은 신앙고백서 1.2의 신구약 목록에 도착합니다.

📜 절별 정리

(★ 표시는 두 책 이상이 함께 드는 구절입니다. 이 교리의 기둥입니다.)

워필드는 예수님의 성경관을 들여다보는 첫 창으로 '성취'를 듭니다. 예수님은 특히 마지막 날들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근거로 제자들이 흩어질 일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붙잡히실 때는 고난을 피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며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프레임은 같은 장면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부와 직접 소통하시던 아들조차 기록된 말씀에 '매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신을 풀어 주셨습니다. 워필드는 요한복음 5:39-40을 경멸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말로 읽습니다. 성경 연구 자체는 옳고, 문제는 그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 성경을 근거로 앞일을 예고하셨다
3. 고난도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받으심
4. 아들의 삶도 기록된 말씀에 매여 있었다
5. 성경 읽기의 종착지는 그리스도

> **마태복음 26:31**
> “기록된 바”를 근거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심 ★워필드·프레임
>
>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26:54**
>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성경 성취를 위해 받으심 ★워필드·프레임
>
>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 **마가복음 14:49**
>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반복된 선언(워필드)
>
>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누가복음 24:25-27

부활 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신을 풀어 주심 ★워필드·프레임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44

율법·선지자·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워필드는 24:44-46을 듦)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5:39-40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종착지는 그분께 오는 것 ★워필드·프레임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고린도후서 3:15-16

실패의 원인은 성경이 아니라 수건 덮인 마음(워필드)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 2.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프레임 19장 4~5절 · 워필드 4장 3절) ^

프레임은 예수님이 구약을 부르신 이름 자체에 그분의 성경관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 "성경",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는 공식은 한마디로 논쟁을

쓰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인 마태복음 5:17-18에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뒤따르는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이르노니”는 계명을 고치는 말이 아니라, 계명을 얕게 가르친 교사들을 꾸짖는 말입니다. 프레임은 제7계명을 인용하신 5:27-30이 오히려 계명이 마음의 욕망까지 다스린다는 것을 확증한다고 읽습니다. 워필드는 5:19의 '버리다'가 요한복음 10:35의 '폐하다'와 같은 낱말(λύω, 뤼오: 풀다·무효로 하다)로 쓰인다고 짚습니다.

1. '율법과 선지자'·'성경'은 권위의 이름
2. '기록되었으되' 한마디로 논쟁이 끝난다
3.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심
4. '들었으나'는 교사 비판, 계명 비판 아님
5.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폐할' 수 없다

> **마태복음 5:17-18**
>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으심,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음(프레임, 이 편의 기둥)
>
>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마태복음 5:19**
> 작은 계명 하나의 무게, '버리다'(λύω)의 용례 ★프레임·워필드
>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 **마태복음 5:27-30**
> 제7계명을 마음까지 넓혀 확증하심(프레임)
>
>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4:4, 7, 10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으되”로 응수하심 ★프레임·워필드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12; 마태복음 22:40

구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로 부르심(프레임)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누가복음 4:21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프레임)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 3.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워필드 4장 5절)

못하였느냐”며 시편 118편과 시편 8편으로 반대자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사두개인에게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했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예는 이혼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24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 말씀하시기를”로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직접 발언이 아니라 서술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바울도 같은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1. 문제는 '덜 믿음'이지 따짐이 아니었다
2. 오해의 뿌리는 성경과 하나님 능력을 모름
3. 창세기 서술자의 문장 = 창조주의 말씀
4.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의 말 전체
5. 바울도 같은 방식으로 인용한다

> **마태복음 19:4-5**
> 창세기 2:24를 '지으신 이'의 말씀으로 인용하심 ★워필드·프레임
>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 **창세기 2:24**
> 서술자의 문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됨 ★워필드(4장·7장)
>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마가복음 10:5-9**
> 같은 구절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인용하심
>
> 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 기록하였거니와 6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 이러므로
>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 아니요 한 몸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고린도전서 6:16

바울도 같은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워필드 4장·7장)

>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마태복음 22:29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오해의 뿌리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1:42

시편 118:22로 메시아가 버림받을 것을 보이심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16

아이들의 찬미를 시편 8:2로 변호하심

>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 4.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 낱말 하나, 시제 하나 (워필드 4장 3절·8절 · 프레임 19장 7절)

이 편의 질문 “한 글자까지?”에 가장 직접 답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82:6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로 변론하셨습니다. 두 저자는 모두 두 가지를

전체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는 전제 위에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워필드는 그 권위가 동원된 곳이 시편의 평범한 한 구절, 그것도 '신'이라는 낱말 하나라는 데 주목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로라”의 현재 시제에 부활 논증을 거셨고, 다윗이 '주'라고 부른 낱말 하나에 메시아 논증을 거셨습니다. 바울도 '자손'이 단수라는 데 논증을 걸었습니다.

1. 시편 82:6의 낱말 '신'에 기대신 변론
2. 시편을 '너희 율법'이라 부르심
3. 성경의 일부면 곧 구속력이 있다
4. 현재 시제·낱말 하나에도 논증을 거심
5. 권위는 가장 작은 표현까지 미친다

요한복음 10:34-36

시편을 '너희 율법'으로 인용하며 신성모독 고발에 답하심 ★워필드·프레임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논증 전체의 전제 ★워필드·프레임(이 편의 기둥)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6

논증이 걸린 낱말 '신' ★워필드·프레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22:32

“나는 … 하나님이로라”의 현재 시제에 부활 논증을 거심(워필드)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3:6

마태복음 22:32가 인용하는 원래 구절(정리자 보충)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마태복음 22:43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 부른 낱말 ★워필드·프레임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갈라디아서 3:16

'자손'이 단수라는 문법 형태에 건 바울의 논증(워필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 5. 시대에 맞춰 주신 것 아닐까? (프레임 19장 3절 · 프레임 18장 2절 · 워필드 4장 3·5절)

가장 흔한 반론은 '적응설'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의 성경관에 맞춰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프레임은 '공동 기반'이라는 말로 답합니다. 예수님과 반대자들은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를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틀린 전통에는 거침없이 맞서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성경 권위에 대한 그들의 이해만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으셨고, 속으로 다른 성경관을 품으셨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워필드는 요한복음 10장의 논증이 상대 생각에 맞춘 말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인정한 전제에서 출발한 정당한 논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같은 성경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덧붙였다는 주장에는 그 증언이 모든 복음서와 그 바탕 자료를 관통할 만큼

시편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유하신 것은 '그 시대 의견'이 아니라 구약이 스스로 가진 자기 이해입니다.

1. 반대자와 공유하신 것은 '성경 권위'
2. 전통엔 맞서고 성경엔 이의가 없으셨다
3. 맞춤 말이 아니라 공통 전제 논증
4. 부활 후에도 같은 성경관
5. 기록된 말씀 존중은 구약 자체의 것

> **마태복음 5:21, 27, 31**
> 전통 해석에는 다른 의견을 내시되 계명은 그대로 인용하심(프레임)
>
> **마태복음 5: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 **마태복음 5: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 **마태복음 5: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 **마가복음 7:6, 10**
>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으시며 이사야와 모세의 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하심(정리자 보충. 워필드는 이 구절을 '이사야가/모세가 이르되' 인용의 예로 든다)
>
> **마가복음 7:6**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 **마가복음 7: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 **누가복음 24:25, 46**
> 부활하신 뒤에도 “기록되었으니”를 믿음의 근거로 삼으심(워필드)
>
> **누가복음 24: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누가복음 24: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호수아 1:7-8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밤낮 묵상하라. 기록된 말씀 존중의 오랜 뿌리(프레임 18장)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72

기록된 율법이 천만 금은보다 나음(프레임 18장)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예레미야 36:23

두루마리를 태운 왕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프레임 18장)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에는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다." — 프레임

📜 6. 사도들도 똑같이: "성경이 이르시되" (워필드 4장 6절 · 7장 1절 · 프레임 20장 2절)

워필드는 예수님의 성경관을 제자들이 만든 것으로 돌리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기록된 바",

'성경'이 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신 분도, 바로에게 선언하신 분도 실제로는 하나님이셨고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씁니다. 다른 쪽에서는 다윗의 시나 시편의 권면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성령이 이르신 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로 인용합니다. 워필드는 이것을 의인화가 아니라 성경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로 여긴 습관에서 나온 화법으로 보고, 프레임은 이 관찰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1. 사도들도 '기록된 바'로 논쟁을 끝냄
2.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이 했다고 씀
3. 사람의 말을 '성령이 이르신 바'로 인용
4. 의인화가 아니라 동일시
5. 프레임은 워필드의 관찰을 이어받음

> **갈라디아서 3:8**
>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이 미리 알고” 전했다고 함 ★워필드·프레임
>
>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 **창세기 12:3**
> 갈라디아서 3:8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약속(워필드 7장)
>
>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로마서 9:17**
>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로 인용 ★워필드·프레임
>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사도행전 4:24-25

다윗의 시를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 ★워필드·프레임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히브리서 3:7

시편 95:7의 권면을 "성령이 이르신 바"로 인용 ★워필드·프레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도행전 13:34-35

이사야 55:3과 시편 16:10을 하나님이 하신 말로 인용 ★워필드·프레임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3-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남(워필드)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 워필드

📜 7. 하나님이 화자가 아닌 구절도 '하나님 말씀' (워필드 4장 7절 · 7장 4절) ^

워필드는 이 동일시가 여러 구절을 줄줄이 잇는 '연쇄 인용'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5-13에 나오는 인용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구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시편 2:7, 사무엘하 7:14, 시편 110:1)도 있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말하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말을 거는 구절(시편 104:4, 시편 45:6-7, 시편 102:25-27)도 섞여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모두 성경의 말이라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5:9-12도 네 구절을 “기록된 바”, “또 이르되”, "또“, ”이사야가 이르되"로 저마다 다르게 소개하지만, 권위는 하나입니다. 워필드는 7장에서 바울이 로마서 9:15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바로 9:17에서 “성경이 이르시되”로 넘어가는 장면을 듭니다. 바울에게 두 표현은 동의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이 화자인 구절'만 따로 떼어 내는 생각 자체가 사도들에게는 낯설었습니다.

1. 연쇄 인용에서 동일시가 가장 뚜렷
2. 하나님께 드린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3. 근거는 하나, 그것이 성경의 말이다
4. 로마서 9:15와 9:17의 두 표현은 동의어
5. '하나님 말씀인 부분'만 고르지 않는다

> **히브리서 1:5-13**
> 화자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워필드. 프레임은 1:6을 같은 용례로 듦) ★
>
>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

시편 45:6-7

하나님께 말을 거는 구절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됨(히브리서 1:8-9)

6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7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2:25-27

같은 경우(히브리서 1:10-12)

25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26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로마서 15:9-12

서로 다른 인용 문구, 하나의 권위(워필드 4장·7장)

9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9:15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출애굽기 33:19)을 현재형으로 인용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로 이어서 “성경이 이르시되”. 두 표현이 동의어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 자체이다.” — 워필드

📜 8. 하나님의 신탁 —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 (워필드 4장 8절 · 7장 6~7절 · 프레임 20장 1절 · 오웬 4장 연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신탁'(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 타 로기아 투 테우)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으뜸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하는데, 워필드와 프레임은 이 신탁을 몇몇 예언 단락이 아니라 구약 전체로 읽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성경을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현재형으로, 때로는 주어 없이 “이르되”로만 인용합니다. 워필드는 7장에서 헬라어 문헌에 '누가 그러더라'는 막연한 뜻의 λέγει 용례가 없다고 밝힙니다. 1세기 유대인 학자 필로에게도 “모세가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한 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분명해서라고 결론짓습니다. 영어 구어에서 성경을 그냥 “It says”라고 할 때의 그 It과 같습니다. 오웬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방향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빛과 능력으로 비친다는 것입니다(자증성. 뒤 편에서 다룹니다).

1. '하나님의 신탁' = 구약 전체
2. 현재형 “말씀하신다”로 인용한다
3. 주어 없는 '이르되'의 주어는 하나님
4. 생략은 대상이 너무 분명하다는 뜻
5. 오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행전 7:38

스데반이 율법을 '살아 있는 말씀'(신탁)이라 부름 ★워필드·프레임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히브리서 5:12

같은 '하나님의 말씀'(신탁) 표현 ★워필드·프레임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에베소서 4:8

주어 없는 “이르기를”로 인용 ★워필드·프레임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히브리서 8:5

주어 없는 “이르시되”(φησίν), 화자는 하나님 ★워필드·프레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2

주어 없는 “이르시되”, 문맥상 하나님(워필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언한다. 그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다.” — 오웬

📜 9. 신약도 같은 '성경'으로 (프레임 21장 7절 · 워필드 4장 18절)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이라 부른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두 저자는 같은 두 구절을 결정적 증거로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18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다음에 신명기 25:4와 함께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를 나란히 인용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는 없고 누가복음 10:7에 나옵니다. 프레임은 출처를 '아마도'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워필드는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울 편지를 억지로 풀다 멸망하는 자들을 두고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말해 바울서신을 성경의 자리에 놓습니다. 워필드는 '성경'이라는 이름을 정당하게 가진 책이라면 같은 권리로 '영감'도 가진다고 결론짓습니다. 프레임은 사도들이 글을 쓸 때에도 선지자 역할을 했으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록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맺습니다.

1. 사도들의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
2. 바울은 누가복음을 신명기와 나란히
3. 베드로는 바울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이'
4. 성경이라는 이름에 영감도 따라온다
5. 옛 언약·새 언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

> **디모데전서 5:18**
> “성경에 일렀으되” 다음에 구약과 복음서를 나란히 인용 ★프레임·워필드
>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신명기 25:4

첫째 인용, 구약 ★프레임·워필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10:7

둘째 인용의 출처(프레임은 '아마도') ★프레임·워필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베드로후서 3:15-16

바울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자리에 둠 ★프레임·워필드(이 편의 기둥)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이 자기 글을 “주의 명령”이라 부름 ★프레임·워필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둘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다.” — 프레임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성경론』 18~21장	그렇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에 매여 사셨고, 반대자들과 성경 권위를 공유하시며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 예수님이 구약을 보증하신다.	예수님을 '말씀의 최고 화자'로 놓고 그분의 보증에서 권위를 끌어냄. 공동 기반으로 적응설을 반박함. 구약 자체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존중했음(18장)	인용 공식의 헬라어 분석은 워필드에 기댐.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어떻게 생기는지(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 장들에 없음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 4장·7장	그렇다.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성경이 이르되”는 곧 “하나님이 이르시되”였고, 그 권위는 낱말·시제·단수형까지 미쳤다.	인용 화법의 정밀 분석(연쇄 인용, 주어 없는 '이르되', 필로의 용례)을 거쳐 축자 영감에 이름	구약이 스스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짧음(프레임 18장이 메운다). 성령의 내적 증거도 이 장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이 편의 재료에 없음) — 워필드와 프레임이 메운다	—	바빙크의 목소리는 사람 저자의 몫(유기적 영감)을 다루는 뒤 편에서 들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이름으로 열거하고,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라고 고백한다.	결론과 목록. 신구약 전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	왜 그런지를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으로 논증하지 않음 — 워필드·프레임이 메운다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과 자증성에 관한 논고』 4장	예수님의 구약관을 따로 논증하지 않음(연결만).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언하며, 그 증언이 곧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다.	성경 안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과 능력. 교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과 사도들의 인용 방식 분석 — 워필드·프레임이 메운다

- 워필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방식'(인용 화법)을 보고, 프레임은 예수님이 '사신 방식'(성취와 순종)과 그분이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봅니다. 두 길은 한 결론에서 만납니다. 성경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 워필드가 짧게 넘긴 '구약이 이미 스스로를 하나님의 글로 알았다'는 배경은 프레임 18장이 메웁니다. 반대로 프레임이 빌려 쓴 헬라어 증거는 워필드 7장이 받칩니다.
- 신앙고백서 1.2는 결론(목록)을 고백하고, 워필드와 프레임은 그 근거를 댑니다. 신약까지 한 목록에 묶는 근거는 두 책이 함께 드는 디모데전서 5:18과 베드로후서 3:16입니다.
-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나?”라는 남은 질문은 오웬 4장(자증성)과 신앙고백서 1.5(성령의 내적 증거)가 맡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무오성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 책들의 목록. '잣대'라는 뜻의 말에서 왔다.

자증성
성경이 다른 누구의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축자 영감
성경의 생각뿐 아니라 낱말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 이 편에서는 낱말·시제·단수형에 건 논증이 그 근거다.

성취
구약이 미리 말한 것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

기록되었으되(게그랍타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헬라어 인용 공식으로, 더 따질 것 없는 최종 근거라는 무게를 지닌다.

하나님의 신탁(타 로기아 투 테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으로, 신약이 구약 전체를 부른 이름이다(로마서 3:2).

일점일획
히브리 글자 가운데 가장 작은 글자와 글자를 구별하는 작은 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며,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는 뜻이다.

적응설
예수님이 진리와 상관없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 맞춰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주장.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그것은 시대에 맞춘 말이 아니었다. 전통은 비판하셨지만 성경은 비판하지 않으셨고, 부활 후에도 같으셨다.
- 사도들도 “성경이 이르시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바꿔 썼다.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탁이다.
- 이 태도는 신약에까지 이어져, 신앙고백서 1.2는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구약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 프레임 · 구약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 프레임 · 구약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 프레임 · 구약성경에 대한 사도들의 견해
- 프레임 ·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
- 워필드 · 제4장 영감
- 워필드 · 제7장 "이르되"와 "성경이 이르시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 오웬 · 4장 성경 안에 있는 신적 기원의 증거 · 자증하는 빛과 능력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